

박 복 규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0년대 패션쇼에 나타난 레트로
메이크업 연구

2010

성신여자대학교 아트·디자인 대학원
조형예술학과 메이크업·특수 분장 전공

오 윤 정

2000년대 패션쇼에 나타난 레트로
메이크업 연구

박복규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12월

성신여자대학교 아트. 디자인 대학원
조형예술학과 메이크업. 특수 분장 전공
오윤정

인 준 서

오윤정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아트·디자인 대학원

논문개요

2000년대의 패션트렌드는 고도로 발달된 과학기술에 의해 인간성의 상실이라는 부정적인 한계를 드러내면서 과거에 대한 향수와 추억을 느낄 수 있는 현대인의 정서가 반영된 레트로 패션(Retro Fashion)으로 진행되고 있다. 언제나 새로운 트렌드들을 제시해야 하는 디자이너 들은 과거의 풍요로웠던 시대를 향한 염원과 21세기의 개성 넘치고 의미 있는 것들을 접목하여 재해석함으로써 제 3의 스타일을 패션쇼에서 선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패션계에서는 1980년대 스타일에 주목하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의 패션, 메이크업, 헤어, 스타일 등이 현재의 새로운 트렌드로 각광받고 있다. 1980년대에 대한 메이크업 스타일은 대중매체의 변화와 사회 경제적인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새롭게 재해석되어 현대패션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1980년대 레트로 메이크업이 현대 패션쇼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는 미미한 상황이다. 따라서 1980년대의 메이크업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과거의 양식이 현재에도 다양한 스타일의 무한한 영감으로서 예술적 모티브를 제공한다는 중요성을 지닌다.

2000년대의 패션쇼에 나타난 레트로 메이크업 연구는 현재 패션의 세부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앞으로 전개될 메이크업의 변천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로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이론적 고찰로서 레트로의 개념과 1980년대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연구하였다. 또한 1980년대 유행한 메이크업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본론에서는 2000년대 패션쇼에 나타난 1980년대의 레트로 메이크업(Retro Makeup)을 주요 컨셉에 따라 분석하였다. 패션쇼에 나타난

레트로 스타일은 여러 가지 컨셉에 따라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을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2007년에서 2009년까지의 패션쇼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Punk Style(펑크 스타일), Glamour Style(글래머 스타일), Androgynous Style(앤드로지너스 스타일)을 연구범위로 제한하였다. 또한 연구내용은 연대별로 나누어 도표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자는 연대별로 도출된 레트로 메이크업의 각 컨셉의 특징을 중심으로 작품 연구를 하였다. 1980년대의 레트로 메이크업 작품 연구를 통해 1980년대의 레트로가 현대의 메이크업에 새로운 모티브로서 창의적인 메이크업 작품 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목 차

논문 개요

| | |
|-------------------------------------------|----|
| I. 서 론 | 1 |
| 1. 연구목적 및 내용 | 1 |
| 2. 연구방법 및 범위 | 4 |
| II. 이론적 고찰 | 5 |
| 1. 레트로(Retro)의 개념 | 5 |
| 2. 1980년대 사회, 문화적 배경 | 8 |
| 3. 1980년대 메이크업 경향 | 10 |
| 1) 핑크 스타일 (Punk Style) | 12 |
| 2) 글래머 스타일 (Glamour Style) | 16 |
| 3) 앤드로지너스 스타일 (Androgynous Style) | 19 |
| III. 2000년대 패션쇼에 나타난 1980년대 레트로 메이크업 | 22 |
| 1. 핑크 스타일 (Punk Style) | 22 |
| 1) 2007년 | 22 |
| 2) 2008년 | 23 |
| 3) 2009년 | 24 |
| 2. 글래머 스타일 (Glamour Style) | 26 |
| 1) 2007년 | 26 |
| 2) 2008년 | 27 |

| | |
|---------------------------------------------|-----------|
| 3) 2009년 | 28 |
| 3. 앤드로지너스 스타일 (Androgynous Style) | 30 |
| 1) 2007년 | 30 |
| 2) 2008년 | 31 |
| 3) 2009년 | 32 |
| IV. 1980년대 스타일을 응용한 메이크업 작품 연구 | 37 |
| 1. 작품의도 및 방법 | 37 |
| 2. 작품 및 설명 | 38 |
| V. 결론 | 47 |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 | |
|-----------------------------------------------|----|
| <표-1> 패션쇼에 나타난 핑크 스타일 분류(2007~2009) | 34 |
| <표-2> 패션쇼에 나타난 글래머 스타일 분류(2007~2009) | 35 |
| <표-3> 패션쇼에 나타난 앤드로지너스 스타일 분류(2007~2009) | 36 |

그림 목 차

| | |
|--------------------------------|----|
| <그림1> 핑크 이미지 | 14 |
| <그림2> 핑크 이미지 | 14 |
| <그림3> 핑크 이미지 | 15 |
| <그림4> 핑크 이미지 | 15 |
| <그림5> 조안 콜린의 글래머 스타일 | 18 |
| <그림6> 마돈나의 글래머 스타일 | 18 |
| <그림7> 앤드로지너스의 이미지 | 20 |
| <그림8> 화장한 보이조지 | 20 |
| <그림9> 눈을 검게 표현한 핑크 메이크업 | 22 |
| <그림10> 키치적인 스타일의 핑크 메이크업 | 22 |
| <그림11> 피어싱을 이용한 핑크 메이크업 | 23 |
| <그림12> 문양을 이용한 핑크 메이크업 | 23 |
| <그림13> 색감을 강조한 핑크 메이크업 | 24 |
| <그림14> 현대적인 핑크 메이크업 | 24 |
| <그림15> 시크한 글래머 메이크업 | 26 |
| <그림16> 모던한 글래머 메이크업 | 26 |
| <그림17> 섹시한 글래머 메이크업 | 27 |
| <그림18> 생기 있는 글래머 메이크업 | 27 |
| <그림19> 성숙한 글래머 메이크업 | 28 |
| <그림20> 파워풀한 글래머 메이크업 | 28 |
| <그림21> 중성적인 앤드로지너스 스타일 | 30 |
| <그림22> 중성적인 앤드로지너스 스타일 | 30 |

| | |
|-------------------------------------|----|
| <그림23> 양성적인 앤드로지너스 스타일 | 31 |
| <그림24> 양성적인 앤드로지너스 스타일 | 31 |
| <그림25> 눈썹을 강조한 앤드로지너스 | 32 |
| <그림26> 눈썹을 강조한 앤드로지너스 | 32 |
| <그림27> 핑크 스타일을 응용한 메이크업 1 | 38 |
| <그림28> 핑크 스타일을 응용한 메이크업 2 | 39 |
| <그림29> 핑크 스타일을 응용한 메이크업 3 | 40 |
| <그림30> 글래머 스타일을 응용한 메이크업 1 | 41 |
| <그림31> 글래머 스타일을 응용한 메이크업 2 | 42 |
| <그림32> 글래머 스타일을 응용한 메이크업 3 | 43 |
| <그림33> 앤드로지너스 스타일을 응용한 메이크업 1 | 44 |
| <그림34> 앤드로지너스 스타일을 응용한 메이크업 2 | 45 |
| <그림35> 앤드로지너스 스타일을 응용한 메이크업 3 | 46 |

I. 서론

1. 연구목적 및 내용

유행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세태와 경향을 일컫는 말로 메이크업 또한 사회적, 문화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시대적인 차이와 함께 점차 변해가고 있다. 더욱이 메이크업은 그 시대의 문화와 가치관 또는 미의식의 영향을 가장 많이 표출시키는 하나의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다¹⁾.

21세기 현대사회는 과학과 산업이 발달해짐에 따라 편리해지고 윤택해진 반면에 인간성이 상실되고 기술에 따른 부작용이 여러 가지로 표출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대인들은 과거에 대한 재인식과 현재의 반성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복고 현상이 메이크업을 비롯하여 패션, 문학, 예술, 건축 등 각 부분에 나타나고 있다²⁾. 이와 같이 옛것으로의 회귀를 뜻하는 말로 레트로 스타일(Retro Style), 리바이벌 스타일(Revival Style) 복고풍 등의 용어가 일반화 되어 쓰이고 있다.

메이크업의 레트로 경향은 고대스타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수용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향은 1980년대 문화에 관심이 고조되면서 1980년대의 구조적인 형태의 패션이 새로운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2009년 패션쇼에서는 어깨가 강조된 재킷과 중성적인 정장 재킷이 큰 인기를 받았다. 소재로는 1980년대 디바인 마돈나의 무대의상과 디스코 문화를 대변하는 광택 있는 소재들과, 동물의 가죽을 응용한 무늬나 가죽 표면의 텍스처(Texture) 등이 응용되어 사용되었다. 여성복에서는 금속장식이 포인트로 사용되었고 액세서리에서도 메탈조각을 이용한 빛나는 장

1) 이현숙 외, 패션과 뷰티를 위한 코디네이션, (서울, 신정, 2002), p.23.

2) Robert Hughes, 최기득 역, 새로움의 충격, (서울, 미진사, 1995), p.9.

신구가 유행하였다. 1980년대 핑크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은 반항적인 스타일은 인조가죽 소재와 타탄 무늬로 재탄생 되었다. 슬림한 가죽 레깅스와 튜브 스타일의 원피스가 유행하였으며 1980년대의 니트 원피스와 박쥐 소매 스웨터도 큰 인기를 받았다.

메이크업에서는 화장품 소재의 발달로 다양한 광택을 이용한 글래머 스타일의 메이크업과 창백하고 희게 표현된 피부에 눈썹을 강조하는 중성적인 메이크업이 유행하였다. 또한 각자의 개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메이크업이 공존하여 선보여졌다³⁾.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해 화려하고 다양성을 보였던 1980년의 메이크업은 현대의 많은 디자이너에 의해 재창조 되고 다양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패션쇼에 선보여진 레트로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는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레트로의 개념과 1980년대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⁴⁾ 레트로 메이크업 스타일을 Punk Style (핑크 스타일), Glamour Style (글래머 스타일), Androgynous Style (앤드로지너스 스타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자가 분류한 레트로 스타일의 컨셉 세 가지는 현재 가장 두드러진 현상으로 구체적 사례와 예시는 인터넷 기사, 신문 보도자료, 잡지를 통해 도출되었다.

레트로의 개념과 1980년대의 사회, 문화적 배경과 메이크업 경향은 선행 연구와 관련문헌을 통해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패션쇼에서 1980년대 메이크업이 연대별로 어떻게 재해석 되었으며 변화되어 왔는지 분석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각각의 컨셉에 해당되는 패션쇼 메이크업의 구체적 사례 제시는 이해력을 돕기 위해 폭넓은 대중의 지지를 받았던 대중가수, 탤런트를 중심으로 제시되었다⁵⁾.

3) 히데오 아오키, 유태순 역, 서양 화장 문화사, (서울, 동서교류, 2004), p.184.

4) 이현숙, 전계서, p.18.

위의 연구를 토대로 1980년대 레트로 이미지 컨셉으로 현대에도 활용 가능한 메이크업 스타일을 작품연구 하고자 하였다.

5) 김유순 외, 이미지 메이킹, (서울, 예림, 2004), p.16.

2. 연구방법 및 범위

1980년대 메이크업을 분석하기 위해 패션과 메이크업에 관련된 서적과 선행 연구된 석 박사의 학위논문과 학회지 논문 등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인터넷 자료등도 포함 되었다. 또한 패션쇼에 나타난 1980년대 이미지 메이크업에 관한 시각자료로는 객관성을 위해 뷰티관련 잡지와 패션 컬렉션지에 수록된 파리, 뉴욕, 런던, 밀라노, 도쿄 중심의 패션쇼(Collection)를 봄, 여름과 가을, 겨울의 시즌별 사진을 활용하였다.

연구 범위는 2007년에서 2009년까지의 패션쇼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Punk Style (핑크 스타일), Glamour Style (글래머 스타일), Androgynous Style (앤드로지너스 스타일)로 제한하였다. 각 컨셉의 특징들은 연대별로 정리하여 도표로 제시하였다. 또한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현대의 레트로 특징을 응용하여 작품연구를 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레트로(Retro)의 개념

오늘날의 사회가 다양화, 전문화, 산업화 되는 추세에 따라 물질적인 풍요를 얻게 된 반면에 여러 가지 기계에 대한 부작용이 생겨나게 되었다. 경기불황과 삭막한 도시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은 미숙하고 따뜻한 감성을 그리워하게 되었고, 이는 오늘날의 복고풍의 유행으로 대변된다. 복고풍의 레트로(Retro) 경향은 2000년대 후반의 문화, 예술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레트로(Retro)는 회고의, 옛것이 그리운 이란 의미를 가진 레트로스펙티브(Retrospective)의 약어에서 출발된 용어로⁶⁾ 특히 패션에서는 이러한 회귀적 경향을 레트로스타일(Retro Style)이라 한다. 이외에도 복고풍, 노스텔지컬 패션(Nostalgic Fashion), 패션리바이벌(Fashion Revival)등으로 그 용어가 일반화되어 되어 쓰이고 있다⁷⁾.

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레트로의 개념은 하나의 창조를 이루는 과정이다. 과거에 유행되어 대중들에게 익숙했던 선행양식들이 현재의 감성과 정서에 맞도록 재창조하는 것으로 과거의 양식을 모방하되 내적의미와 외적형식이 변화를 이루는 패러디 과정을 통해 나타남으로써 새로운 표현성을 갖는 현재의 유행 스타일로 재창조 되는 것이다.

레트로 현상을 과거 유행 했던 스타일의 재현⁸⁾ 이라 정의할 때 레트로 개념은 모방, 패러디, 유행개념과 함께 설명 되어 질수 있다.

6) 안병기, 패션 전문 용어의 이해, (서울, 경춘사, 2003), p.209.

7) 백승희, 신 회귀 경향에 의한 식물 이미지 패턴개발 연구, (이화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1991), p.5.

8) 조규화, 복식미학, (서울, 수학사, 1993), p.250.

과거의 모방이라는 개념은 독창성이나 창조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예술적 가치에서 도외시 되어왔다⁹⁾. 그러나 모방이라는 개념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모방은 예술의 근원적 요소로 정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방은 복사(Copy)와는 다르며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효과의 근원과 지적인 이성, 원인, 그리고 원칙 등이 모방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어야 한다. 진정한 모방은 본질에 대한 넓은 관찰과 연구에 의해 그것을 일반화함으로써 그에 따르는 조형 체계를 함축시킬 수 있어야 한다. 모방은 이처럼 단순히 형태의 유사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재의 조건과 문제를 조명함으로써 그에 따르는 조형체계를 재구성할 때에 의의를 갖는 것이다.

패러디(Parody)는 희랍어로 파로디아(Parodia) 라는 명사에서 그 어원을 두고 있다.¹⁰⁾ 파로디아는 노래를 의미하는 낱말인 오도스(Odos)에서 연유하고, 파라(Para)는 텍스트들 사이의 대조 또는 상반을 뜻하는 것 외에 일치와 친숙의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다. 패러디란 용어는 문학뿐만 아니라 음악, 연극, 영화, 미술 등 여러 예술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패러디가 단순한 모방과 구별되는 점은 유사성 가운데 차이점을 가진 모방이라는 점, 원작과 패러디를 대비시켜 생각하게 함으로써 그 의미의 해석에 있어 두 가지 의미를 공유하게 한다는 점이다¹¹⁾.

레트로와 개념이 유사하지만 차이성이 있는 용어로는 빈티지(Vintage), 패스티쉬(Pastiche), 브리콜라주(Bricolage) 등이 있다.

빈티지(Vintage)는 유럽에서 포도가 숙성되어 최상의 와인이 만들어졌을 때 이것을 칭해 빈티지라고 하였다. 이 말은 최상의 상태를 일컫는 표

9) 김영순외, 패러디와 문화,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5), p.127.

10) Linda Hutcheon, 김상구 역, 패러디 이론, (서울, 문예사, 1998), p.192.

11) 양진희,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레트로 경향, (건국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8.

현이 되었고 패션에 접목되면서 어느 일정기간을 경과해도 광채를 잃지 않는, 가령 한 때는 광채를 잃어도 어떤 특성의 두드러진 유행 또는 유행 품을 가리키게 되었다.

제임슨(Jameson)에 의하면 패스티쉬(Pastiche)는 저자나 작곡가의 스타일을 해학적으로 모방한 패러디와 정확히 구별된다¹²⁾. 패스티쉬는 수사학적 자극이 없는 패러디인 셈이다. 즉 패러디 같은 동기 유발이나 풍자적 자극이 없어서 단순한 복사를 실행 하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브리콜라주(Bricolage)는 사전적으로 자질구레한 수리나 뜯어 맞추기를 뜻한다. 이는 잔재와 부스러기들, 개인이나 역사에 대한 시대에 뒤떨어진 흔적을 새로운 창작물위 구성요소로 이용한다는 뜻이다¹³⁾. 브리콜라주는 과거에 이미 사용되었던 재료들로 부터의 연속적인 재구성 즉, 요소간의 연속적인 재조합인 것이다.

레트로와 패스티쉬, 브리콜라주는 서로 유사성이 있고 모두 과거의 것과 관련이 있다. 패스티쉬는 단순한 복사의 성격을 띠고 있는 모방이며, 브리콜라주는 과거양식의 재료나 아이টে를 재조합한 것이며, 레트로는 과거양식의 각 아이টে들의 형태나 특성과 스타일로부터 그 시대의 감각까지 응용해 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¹⁴⁾. 따라서 레트로 패션은 변형된 새로운 패션을 포함하며, 레트로 메이크업의 복고주의는 단순히 과거에 유행한 메이크업스타일의 재현만 뜻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스타일을 응용하거나 새롭게 변화시켜 제3의 새로움으로 탄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12) 현택수, 일상 속의 대중문화 읽기,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2003), p.54.

13) 후지사와 고노스케, 유진상 역, (서울, 휘닉스, 2005), p.39

14) 천지영,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레트로 경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p.17.

2. 1980년대 사회, 문화적 배경

1980년대에는 이란,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파동으로 세계 경제는 침체되었으며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생활양식은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소비생활과 더불어 여성들의 힘(Woman's Power)이 부각되면서 사회참여의식은 높아지고 일반화됨에 따라 경제력의 향상과 더불어 생활의 여유를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여가를 중시하면서 보다 질적인 삶을 즐기고자 하였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보수주의 경제정책을 펼치면서 국민들에게 신념을 안겨주었으며 고조되었던 동서냉전의 분위기는 구소련 고르바초프 대통령에 의한 글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와 같은 개방과 정치개혁을 선두로 다양한 국제교류가 진행되면서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¹⁵⁾. 베를린을 갈라놓았던 장벽은 1989년에 붕괴되면서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도 서서히 붕괴되었고 이로 인해 새로운 정치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대중은 삶을 계획하는데 중요한 요인인 물질적인 풍요와 개인적인 야망에 보다 집착을 하여 소비주의를 가져왔으며 새로운 패션 리더 그룹인 여피족이 등장하였다. 여피는 Young Urban Professionals의 약자로서 뉴욕을 중심으로 한 도시 근교의 25-45세 사이의 젊은 지식인과 사무직 노동자들을 가리키는 용어였다. 여피족은 직업적 성공과 경제적인 부에 가치를 두며 돈과 이미지에 집착하는 시대상을 반영하듯 고가의 디자이너 의상과 액세서리 등 값 비싼 상품을 구입하면서 자신의 부를 나타내려 하였다¹⁶⁾. 또한 아름다운 육체는 다른 분야의 성공과도 직결된다고 보

15) 김지희 외, 20세기 화장 문화사, (서울, 경춘사, 2006), p.203.

16) 홍명섭, 전환기의 현대미술, (서울, 솔학술총서, 1991), p.46.

았으며 외모와 자기 관리를 중요시 여겼다.

문화 및 예술사조에서는 새로운 모던이라는 뜻을 가진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다양한 전위적 운동의 전개와 실험적 시도를 추구하면서 전통을 거부하거나 혼합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모더니즘적인 사고의 틀을 거부하고 주류와 비주류간의 경계를 해체함으로써 나뉘져 있던 장르가 붕괴되고 서로 혼합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패션은 더욱 다변화 되었다. 동양적인 것과 서양적인 것의 절충,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의 절충, 그리고 희미해지는 엔드로지너스 룩 대한 새로운 해석이 등장하였다¹⁷⁾.

1980년대 일본은 눈부신 경제발전으로 국제사회의 이슈로 떠올랐고 세계 패션시장에 일본 디자이너들이 대거 출현하게 되었다. 파리에서는 다카다 겐조(Takada Kenzo),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 레이 카와쿠보(Rei Kawakubo)와 같은 일본 출신의 디자이너들이 동양적인 디자인을 구성하여 새로움을 주면서 세계적으로 부각되었다. 이로 인해 일본풍의 의상과 문화가 패션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1980년대는 정보화 사회의 대중화가 시작되었다. 가정용 컴퓨터(PC), MTV(Music TV), VCR(Video Cassette Recorder), CD(Compact Disk)가 가정에 사용되는 새로운 기술 혁신의 시대였다. 산업공학의 발달로 인하여 산업용 로봇이 사용되었고, 기계문명의 발달은 오피스혁명과 산업구조의 변혁이 이루어졌다¹⁸⁾.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세계는 공동운명의 지구촌이라는 지각이 일게 되었다. 일반인이 환경문제에 대한 과학적 보고를 대중 매체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각종 공해와 자연 파괴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문제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17) 김지희, 전계서, p.205.

18) 양숙향 외, 패션 20세기, (서울, 교학연구사, 2006), p.198.

3. 1980년대 메이크업 경향

1980년대는 건강과 운동의 열풍과 함께 파워우먼 같은 여성이기를 희망하며 마른체구 보다는 건강하고 근육질의 체형을 더 선호를 하였다. 여배우 제인 폰다(Jane Fonda)는 건강과 미용에 관한 댄스비디오, 자서전 등을 발매하며 그녀의 건강하고 육체미 넘치는 스타일을 과시했다. 이로 인해 세계적으로 에어로빅 붐을 일으키게 되었으며 에어로빅 사업에 부채질을 했다. 운동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운동복 패션은 언제 어디서나 입을 수 있는 대중적인 아이템으로 일반화로 유행이 되었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셀룰로오스(Cellulose)를 이용하여 속눈썹을 풍성하게 하는 마스크라와 땀이나 물에도 지워지지 않는 워터 프루프(Water proof)마스크라도 등장하였다¹⁹.

MTV의 등장은 80년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젊은이들은 마이클 잭슨(Michael Joseph Jackson), 마돈나(Madonna Louise Veronica Ciccone), 보이조지(George Alan O'Dowd) 등의 스타의 독특한 의상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그들의 화장과 패션을 따라했다. 1980년대의 유명한 여배우로는 글래머 스타일의 브룩 쉴즈(Brooke Christa Shields)와 청순한 이미지의 소피 마르소(Sophie Daniele Sylvie Maupu)가 있다.

1980년대의 뷰티 아이콘으로 영국의 다이애나 비(Diana Frances Spencer)는 컷트 헤어스타일을 유행시켰다. 다이애나 비의 짧은 헤어와 의상 등 패션은 모든 여성들에게 모방의 대상이 되면서 패션과 모자의 유행과 장신구 산업에도 영향을 끼쳤다²⁰.

1980년대 후반은 프레온 가스로 인한 오존층 파괴가 주된 사회문제로

19) 김금란 외, 플러스 메이크업, (서울, 예림, 2007), p.53.

20) 히데오 아오키, 상계서, p.187.

대두되면서 자외선의 부작용과 피부암이 높은 관심을 끌면서 초반의 색조 화장에 대한 관심은 점점 쇠퇴하고 피부미용에 관심을 가졌다.

1) 펑크 스타일 (Punk Style)

펑크(Punks)문화는 1970년대 후반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제적인 불황과 청년 실업 문제 등의 사회문제가 대두(擡頭)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실업률의 상승은 노동계급의 젊은이들은 좌절, 분노, 절망, 공포를 느끼게 만들었다. 펑크 문화는 경제적 위기를 거치면서 그동안 무시되어왔던 영국의 청년 노동자 계급들이 그들의 내적심리를 표현하는 반문화적인 운동이다²¹⁾. 펑크(Punks)는 속어로 시시한 사람, 재미없는 것, 불량 소년소녀, 가치 없거나 하급의 것, 풋내기, 젊고 악한, 젊은 방랑자, 순진하고 어리석은 자를 의미한다²²⁾.

펑크 스타일을 추구하는 이들은 물질만능에 많은 가치를 둔 출세지향적인 십대들을 지탄하였고 스스로 반 성취주의를 택하였다²³⁾. 미래에 대한 전망과 일자리도 주지 못하는 기성사회에 대한 반항과 강한 거부감을 표현하기 위해 공격적이고 불쾌감을 주는 복장을 하고 다녔으며 허무주의와 무정부주의로 도피하게 만들었다²⁴⁾.

펑크스타일은 펑크록의 대표적인 그룹인 섹스 피스톨즈(Sex Pistols)에 의해 유행되기 시작하였는데 펑크 뮤지션들은 사회에 대한 불만, 공격적인 가사로 기존 사회에 충격을 주었으며 록 스타들을 모방하는 젊은이들에게 의해서 펑크패션은 그들만의 스타일로 형성이 되었다.

펑크족의 스타일은 검정 가죽 재킷의 오토바이 복장(Rider's Jacket)과 찢어진 청바지에 속박과 구속을 상징하는 체인을 두르고 옷핀이나 면도날을 꽂는 등 충격적이면서 의도적으로 무질서하고 추한 표현을 통

21) 오희선, 재미있는 색 이야기, (서울, 교학연구사, 2001), p.12.

22) 조규화, 이희승, 패션 미학, (서울, 수학사, 2004), p.5.

23) Alison Luries, 유대순역, 의복의 언어, (서울, 경춘사, 1986), p.143.

24) 홍명섭, 전계서, p.265.

해 미래가 없음을 상징하였다²⁵⁾. 이러한 핑크 패션은 1970년대의 핑크 집단
단의 저항 패션으로 끝나지 않고 1980년대 미국과 영국 등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산이 되면서 폭발적인 인기와 함께 대중문화와 청소년층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청소년 패션으로 이어졌다.

핑크족들의 헤어스타일은 양 옆은 면도를 하고 앞이마부터 뒷목둘레까
지는 둥근 모양으로 자르는 모호크 스타일(Mohawk Style)과 불규칙한
길이의 머리를 뺏뺏이 세운 스파이키 스타일(Spiky Style) 을 즐겼으며²⁶⁾
머리카락을 초록색(Green)과 형광 핑크색(Magenta), 오렌지색(Orange)등
다양한 형광색이나 원색으로 염색을 하였는데 컬러풀한 헤어스타일로 일
반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갖도록 유도를 하였다. 핑크족
의 상징인 파격적이고 파괴적인 헤어스타일은 널리 유행을 불러 일으켜
하나의 헤어패션 아이콘으로 자리를 잡았다. 또한 여성들도 관습적인 여
성상을 버리고 남여가 모두 똑같이 불규칙적인 화장과 파격적인 헤어스
타일로 퇴폐적인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서²⁷⁾ 여성으로써의 아름다움을 추
구하던 과거의 미의식과는 다른 충격을 던져 주었다.

입술에는 검정색(N1.25)이나 검은색에 가까운 진한 붉은색(10PR,5/10)으
로 표현을 하여 공격적이고 퇴폐적인 이미지를 표현했으며²⁸⁾ 눈썹은 날
카롭게 수정을 하거나 밀어버리고 옷핀, 은제품의 스테드(Stud, 징) 장식,
가느다란 쇠막대와 바벨의 축소형 등 여러 가지 장신구로 눈썹에 장식을
하였다.

25) 오희선, 전계서, p.13.

26) 광형심 외, 미용문화사, (서울, 청구문화사, 2003) p.265.

27) Robeert Hughes, 전계서, p.62.

28) Eleanor Heartney, 이태호 역, Postmodernism, (서울, 열화당, 2003), p.32.



<그림 1> 펑크 이미지

(곽형심 외, 미용문화사, 청구문화사 2004, p.265)



<그림 2> 펑크 이미지

(Colin McDowel, Fashion today, Punks in London, 1981. p.373)

<그림 1>은 주황색(5YR,6/12)과 파란색(5B,4/8)으로 염색된 닭 벼슬 형태의 모호크 스타일(Mohawk Style)의 헤어스타일을 보여준다. 모호크 스타일은 머리의 양 쪽을 면도하거나 짧게 깎고 가운데 머리만 띠 모양으로 기르는 독특한 헤어스타일이다. 사선형의 눈 화장과 볼터치는 공격적인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형광색의 사용으로 성별의 구분을 모호하게 치장하였다.

<그림 2>는 스테드(Stud, 징)와 스파이크(Spike)가 박힌 가죽 라이더스 재킷을 입고 깨끗하게 세운 스파이키 스타일의(Spiky Style)헤어 스타일을 연출하였다. 눈에는 검은색(N1.25)으로 가면과 같이 화장함으로 공포, 죽음을 연상하게 메이크업 하였으며²⁹⁾ 뾰족한 입술모양의 화장으로 개성 있는 펑크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29) 오희선, 전계서, p.42.



<그림 3> 펑크 이미지
 (Colin McDowel, Fashion today,
 Punks in London, 1981. p.327)



<그림 4> 펑크 이미지
 (Colin McDowel, Fashion today,
 Punks in London, 1981. p.374)

<그림 3>은 밝은 금발(5Y,9/14)로 염색한 폴큐핀 스타일(Porcupine style)의 헤어스타일과 날카롭고 길게 뻗은 새의 형상을 한 검정색(N1.25) 아이라인과 짙은 붉은색(10PR,5/10)의 입술로 선정적이고 도발적인 펑크 이미지를 표현했다.

<그림 4> 여성은 염색된 드레드호크(Dreadhawk)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다. 드레드호크는 펑크 헤어스타일 중에서도 머리카락을 밑으로 늘어뜨린 스타일이다. 메이크업은 화려한 색상의 노란색(5Y,9/14)과 붉은색(5R,4/14)의 혼합으로 사선형의 눈 화장에 기하학적인 눈썹을 그려서 강한 정체감을 나타내었다. 남성은 비대칭하게 잘려진 헤어스타일에 부분적으로 붉은색 컬러(5R,4/14)의 브릿지를 넣음으로 강렬한 헤어스타일을 추구하였고 흰 피부에 짙은 회색(N3)으로 눈 화장을 하였다.

2) 글래머 스타일 (Glamour Style)

글래머(Glamour)는 육체가 풍만하고 성(性)적 매력이 있는 상태 또는 그 여성을 뜻하는 명사로서 글래머 걸(Glamour girl)에 해당되는 의미로 해석되며³⁰⁾ 패션용어로는 섬세하고 우미감이 있고 섹시한 무드가 있는 것을 뜻한다.³¹⁾ 엘레강스(Elegance)라는 말로는 표현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매력적인 섹시함을 의미하며 우아함과 화려한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

글래머 스타일은 1980년대의 주된 테마이자 매혹적인 여성상의 이미지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시대는 과거에 대한 복고풍의 영향으로 옛 할리우드 스타일인 글래머에 관심이 부활하여 조안 콜린스(Joan Henrietta Collins)나 린다 에반스(Linda Evanstad)같은 풍만한 스타일을 추구하게 되었다. 디자이너들은 새로운 트렌드의 영감을 찾기 위해 과거의 이미지를 다시 되짚어 보기 시작하였고 그 가운데 할리우드 배우들이 추구하는 아이콘에서 자주 보이는 글래머 이미지는 중요한 콘셉트가 되었다. 특히 텔레비전 드라마인 다이너스티(Dynasty)나 달라스(Dallas)가 당시 큰 인기를 끌었는데 이들이 보여준 고상하고 클래식한 메이크업과 몸매를 부각시키는 풍성한 스타일의 의상들은 모든 여성들의 관심과 더불어 큰 인기를 끌고 유행을 선두하게 되었다. TV드라마에 출연한 스타들의 의상은 재력을 가진 자들의 과시적이고 화려한 생활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으며 파워드레싱(Power dressing)이라는 극적인 패션 형태를 창조해냈다.³²⁾ 특히 의상의 어깨부분에 어깨패드를 넣어서 어깨부위를 강조하고 확대하

30) 두산동아 사서 편집국, 동아 새 국어 사전, 제 5판, (서울, 두산동아, 2003), p.338.

31) 정홍숙, 서양 복식 문화사, (서울, 교문사, 1997), p.397.

32) 양숙희, 한수연, 패션과 영상,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2008), p.226.

는 이러한 스타일은 여피족의 부유한 생활의 상징을 보여주는 패션으로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받았다.

산업의 발달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던 시대인 1980년대는 취미 활동으로 운동이 대중화 되어 댄스와 에어로빅이 성행하였다. 제인 폰다(Jane fonda)를 중심으로 한 에어로빅 붐으로 인해 너무 마르지 않고 풍만하며 균형적인 몸매로 여성의 파워와 과시적 부를 상징하게 되었다. 당시 인기 드라마들은 1930년대나 1940년대 할리우드의 영향을 받았지만 상류사회의 로맨스보다는 상류사회의 파워와 즉각적인 욕구충족, 건강미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복고적인 레트로(Retro)스타일은 1980년대를 기점으로 크게 유행하였는데 여배우 마릴린 먼로(Norma Jean Mortensen)의 영향을 받은 마돈나(Madonna)는 과거 여배우들의 굴곡 있는 몸매를 강조하고 눈매와 입가에 진한 색조화장을 유행시키면서 큰 인기를 받았다³³⁾. 마돈나가 뮤직비디오 Like a Virgin에서 보여준 로커풍의 롱 레이스 장갑과 코르셋 의상과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안무와 더불어 진한 색조 메이크업은 기존의 보수적인 문화에 대한 일탈적 행동으로 간주되었고, 마돈나 자신의 육체적 이미지를 상품화시켰다는 점에서도 1980년대의 대중문화에 큰 충격을 주었다. 마돈나는 특히 1980년대의 페티시즘 패션의 아이콘으로 에로틱한 란제리룩과 섹시 패션으로 관능적이고 육감적인 여성의 몸을 강조하며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클래머로서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다.

1980년대의 메이크업은 1970년대보다 색조가 강해지고 화려해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눈과 눈 주위를 컬러 아이섀도우와 펄(Glitter)로 화장하여 강조하였으며³⁴⁾ 풍성한 웨이브의 헤어스타일을 추구하였다.

33) 박성렬, 선택받은 색, (서울, 경향미디어, 2006), p.197.

34) David Batchelor, 김윤희 역, 색깔이야기, (서울, 아침이슬, 2002), p.101.



<그림 5> 조안 콜린의 글래머 스타일
 (김지희 외, 20세기 화장문화사, 예림, 2005. p210)



<그림 6> 마돈나의 글래머 스타일
 (김광숙, The make up, 예림, 2002. p.69)

<그림 5>의 여성들은 화려하고 관능적인 글래머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오른쪽의 조안 콜린스(Joan Henrietta Collins)는 진하게 그린 눈썹과 펄이 들어있는 색조로 눈과 입을 강조한 글래머 메이크업을 보여주고 있다. 풍성한 헤어스타일과 광택이 있는 글램룩(Glam Look) 스타일의 드레스로 글래머의 이미지를 더욱 강조시키고 있다.

<그림 6>은 마돈나의 사진으로, 1950년대 마릴린 먼로를 재현하여 밝게 염색된 헤어스타일과 반짝거리고 짙게 바른 붉은(10PR,5/10) 입술로 관능적인 메이크업을 연출하였다. 과거의 여배우들을 1980년대의 문화로 재해석한 마돈나는 레트로 스타일을 응용한 과격적인 의상과 메이크업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3) 앤드로지너스 스타일 (Androgynous Style)

앤드로지너스(Androgynous)의 의미는 자웅동체의, 양성공유의란 뜻으로³⁵⁾ 패션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부정하지 않고, 여성이 남성의 복식을 착용하고 반대로 남성이 여성의 복식을 착용함으로써 여성적인 것과 남성적인 것을 교차(Cross over)시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다³⁶⁾.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 문제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1984년 이래 성(性)혁명으로³⁷⁾ 앤드로지너스 룩이 화제가 되어 나타났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동성애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확산되면서 여성성과 남성성이 갖는 공유의 특성을 별개로, 양성을 공존하는 인간 본연의 순수함을 추구하려는 성 운동이 시작되었다³⁸⁾. 남성들은 여성과 같이 밝은 색채 화장과 화려한 장신구를 시도하였는데 보이조지 같은 록 가수들의 여장이나 남장의 메이크업과 자유롭게 남녀 성(性)구별이 없는 메이크업이 유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보이 조지(George Alan O'Dowd)는 모자, 긴 민속풍의 머리와 성별의 구별이 없는 프록코트(Frock Coat)와 튜닉(Tunic) 차림으로 깨끗하게 화장을 하여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이미지로 나타나 놀라움을 주었으며 나중에는 긴 머리카락, 화장 그리고 나약해 보이는 스타일은 다른 남성들에게 반영 되었다. 특히 마이클잭슨(Michael Joseph Jackson)은 마치 백인과 같은 흰 얼굴에 여성적 외양의 얼굴로 성형, 나이를 잊게 하는 젊은 복장으로 전형적인 앤드로지너스 룩을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그의 모습은 남성과 여성, 젊음과 늙음, 흑과 백의 경계를 제

35) 조규화, 전개서, p.263.

36) 윤진섭, 몸의 언어, (서울, 터치아트, 2009), p.223.

37) Robeert Hughes, 전개서, p.52.

38) 윤진섭, 전개서, p.151.

거하는 다양한 양면가치의 특성이 그대로 표현되어 현대시대의 다양성을 확실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³⁹⁾

반면에 여성복에서는 남성의 복식을 입는 매니쉬(Mannish) 현상이 유행하였다. 매니쉬 패션은 직장 여성들을 중심으로 남성적인 분위기의 테일러드 재킷과 팬츠가 유행하였다. 여성들은 사회진출의 증가로 인해 남성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능력 있고 강인한 여성 이미지로 보여 지기를 원했다⁴⁰⁾. 귀엽고 여성스러운 이미지보다는 두껍고 진하게 눈썹을 그려서 이목구비를 강조 하였으며 흰색이 많이 포함된 광택 없는 색조로 강조한 남성적인 이미지를 나타냈다.

앤드로지너스의 표현은 헤어에서도 나타났는데 종래의 여성스러움이나 댄디즘을 초월한 것처럼 짧게 깎아 빗은 커트머리가 특징적이다. 머리를 남성처럼 짧게 치켜 깎고 뒤로 딱 붙인 스타일⁴¹⁾이나 양쪽 옆을 눌러 붙이고 앞머리는 바짝 뒤로 올리는 스타일 등 소년과 같은 짧은 머리를 헤어로션이나 드라이어로 손질하여 유동적인 스타일로 표현하였다.



<그림 7> 앤드로지너스의 이미지

(Beauty & Health 연구회, Make up & Style 100년사. 현문사, 2001, p176)



<그림 8> 화장한 보이조지

(Colin McDowel, Fashion today, 1981. p.121)

39) 채금석, 현대 복식 미학, (서울, 경춘사, 1995), p.323.

40) 사라 켄트, 정소영 역, 여성이 갖고 있는 남성의 이미지, (서울, 삼신각, 1996), p.14.

41) Eleanor Heartney, 전개서, p.52.

<그림 7>의 앤드로지너스의 이미지는 창백하고 건조한 피부 표현과 검정색(N1.25)을 이용한 눈 화장으로 성적매력이 거세된 죽은 사람과도 같은 중성적 이미지⁴²⁾를 표현하고 있다.

<그림 8> 보이조지(Boy George)는 1980년대의 여성의 사용하던 화장을 하였는데 정돈된 진한 눈썹과 붉은(10PR,5/10) 입술로 여성미⁴³⁾를 나타내었다.

42) Eleanor Heartney, 상계서, p.59.

43) 오희선, 상계서, p.17.

Ⅲ. 2000년대 패션쇼에 나타난 1980년대

레트로 메이크업

2000년대 패션쇼에 나타난 메이크업은 레트로의 영향으로 과거 메이크업이 현재에 다양하게 재해석되고 응용되어 표현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1980년대의 메이크업 이미지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장 강조가 된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메이크업을 연대별로 구분하여 펑크, 글래머, 앤드로지너스 메이크업으로 분류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1. 펑크 스타일 (Punk style)

1) 2007년



<그림 9> 눈을 검게 표현한 펑크 메이크업
(Christian Dior Collection. 2007. F/W,
Fem Collections, 2007, p.20)



<그림 10> 키치적인 스타일의 펑크 메이크업
(John Galliano Collection. 2007. F/W,
Fem Collections, 2007, p.59)

<그림 9>은 2007년 가을, 겨울(F/W)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의 패션쇼 이미지이다. 모델은 지나치게 창백한 하얀 피부와 어두운 검정색(N1.25) 색도를 눈 주위에 넓게 펴 발라서 강한 명도대비와 함께 강렬한 이미지⁴⁴⁾를 보여주었다.

<그림 10>은 2007년 가을, 겨울(F/W)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의 패션쇼 이미지이다. 핑크의 대표적인 헤어스타일인 위로 솟은 머리형의 모델은 눈언저리를 둥그랗고 어둡게 표현하여 글리터 효과를 줌으로써 눈을 강조하였다. 윤기 있는 질감으로 작게 표현된 검은 입술은 큰 눈 화장과 비대칭의 조화를 이룬다.

2) 2008년



<그림 11> 피어싱을 이용한 핑크 메이크업

(Unconditional Collection. 2008. F/W,

<http://www.style.co.kr>)



<그림 12> 문양을 이용한 핑크 메이크업

(Naoto Hirooka Collection. 2008. F/W,

<http://www.style.co.kr>)

44) 하카모토 다카시, 이동민 역, 색체의 마력, (서울, 아트북스, 2007), p.50.

<그림 11>은 2008년 가을, 겨울(F/W) 언컨디셔널(Unconditional) 패션쇼 사진이다. 모델은 창백한 피부 표현과 밀어버린 눈썹, 한색계열(10BP,3/10)의 입술표현으로 차갑고 비인간적인 이미지를 보여준다. 입술에 뚫은 금속성의 피어싱(Piercing)과 몸에 그려진 문신은 펑크 스타일의 대표적인 바디 장식으로서 디자이너의 강한 개성을 나타내었다.

<그림 12>의 2008년 가을, 겨울(F/W) 히로오카 나오토(Naoto Hirooka) 컬렉션에서는 모델의 얼굴 중심에 마름모꼴의 도형을 삽입하여 시선을 집중시켰다.

3) 2009년



<그림 13> 색감을 강조한 펑크 메이크업
(Naoto Hirooka Collection. 2009. F/W,
In Beauty, 2009, p.238)



<그림 14> 현대적인 펑크 메이크업
(Christian Dior. 2009. F/W,
In Beauty, 2009, p.22)

<그림 13>은 2009년 가을, 겨울(F/W) 히로오카 나오토(Naoto Hirooka)

패션쇼 사진이다. 모델은 검정색(N1.25) 아이라이너로 눈 주위를 검게 화장한 스모키 메이크업을 하고 눈에 띄는 보라색(5P,3/12)과 핑크색(10RP, 4/10)을 코를 중심으로 비대칭 사선으로 교차시켜 발라줌으로써 남들과는 같지 않은 자신만의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스타일을 연출하고 있다.

<그림 14>은 2009년 가을, 겨울(F/W)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 패션쇼 사진이다. 모델은 눈 주위를 검정색(N1.25)으로 어둡게 표현한 다 음 에메랄드 색(10YG,6/10)의 포인트 컬러를 가미하여 눈을 강조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사선으로 표현한 핑크색(10RP,4/10)의 블러셔로 강인함을 표현하였다.

2. 클래머 스타일 (Glamour Style)

1) 2007년



<그림 15> 시크한 클래머 메이크업
(Versce Collection. 2007. F/W,
Fem Collections, 2007, p.211)



<그림 16> 모던한 클래머 메이크업
(Sophia Kokosalaki Collection. 2007. F/W,
Fem Collections, 2007, p.259)

<그림 15>은 2007년 가을, 겨울(F/W) 베르사체(Versace) 패션쇼 사진이다. 글램 룩(Glam look)과 1980년대의 화려함을 가미해 인위적인 메이크업에서 벗어나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세련됨을 보여주고 있다. 푸른색(5B,4/8)과 보라색(5P,3/12)계통의 아이섀도를 사용해 눈두덩이 전체에 그라데이션(Gradation)을 주어 눈매를 강조했다. 밝고 화사한 피부표현과 연분홍(2.5R 8/6)색의 입술 메이크업으로 도시적이고 미래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완성하였다.

<그림 16>은 2007년 가을, 겨울(F/W) 소피아 코코살라키(Sophia Kokosalaki)의 패션쇼 사진이다. 메이크업으로 검정색(N1.25) 아이섀도로 깊은 눈 화장과 풍성한 속눈썹으로 눈 화장하였으며 크림색(5Y,9/4)의 입술로 모던하고 현대적인 글래머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2) 2008년



<그림 17> 섹시한 글래머 메이크업
(Versace Collection. 2008. S/S,
Gap Press, 2008, p.57)



<그림 18 > 생기 있는 글래머 메이크업
(Michael Kors. 2008. S/S,
Gap Press, 2008, p.171)

<그림 17>은 2008년 봄, 여름(S/S) 베르사체(Versace)의 패션쇼 사진이다. 모델은 호두색(10YR,5/6)의 펄(Glitter) 소재의 눈 화장으로 성숙하고 고급스러운 메이크업을 하였다. 눈 꼬리 끝을 올려 길게 그려 동양적인 신비로움과 섹시함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 18>은 2008년 봄, 여름 (S/S) 마이클 코어스(Michael Kors) 컬렉션이다. 모델은 활동적이고 스포티한 여성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연스런 눈썹, 미세하게 빛나는 피부에 노란 색(5Y,9/14)과 주황색(10YR,6/10)의 아이섀도는 건강한 이미지의 메이크업을 완성하고 있다.

3) 2009년



<그림 19> 성숙한 글래머 메이크업
(Gucci Collection. 2009. F/W,
In Beauty, 2009, p.99)



<그림 20> 파워풀한 글래머 메이크업
(Chloe Collection. 2009. F/W,
In Beauty, 2009, p.58)

<그림 19>는 2009년 가을, 겨울(F/W) 구찌(Gucci) 패션쇼 사진이다. 모델은 1980년대의 대표적인 스타일로 새롭게 변형하기 보다는 재현에 가깝게 표현되었다. 아이메이크업은 자홍색(10YR,6/10)과 파란색(5B,4/8), 보라색(10BP,3/10)의 색도에 검정 아이라인을 그려주어 금속성의 스모키

눈을 나타냈다. 글래머의 상징인 붉은(10PR,5/10) 립스틱으로 피부에 밀착된 질감표현과 강한 색감의 사선의 볼터치가 더해져 1980년대의 파워풀(Powerful)하고 화려한 글래머 메이크업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0>은 2009년 가을, 겨울(F/W) 끌로에(Chloe) 패션쇼 사진이다. 1980년대의 브룩 실즈(Brooke Christa Shields)를 연상하게 하는 굵고 진한 눈썹을 그리고 갈색계열(5YR,6/12)의 아이채도를 눈 주위에 넓게 펴 발라 주어 깊이감이 있는 눈을 만들어 성숙하고 관능적인 글래머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3. 앤드로지너스 스타일 (Androgynous Style)

1) 2007년



<그림 21> 중성적인 앤드로지너스 스타일
(Veronique Branquinh. 2007. F/W,
<http://www.style.co.kr>)



<그림 22> 중성적인 앤드로지너스 스타일
(Dries Vannoten Collection. 2007. F/W,
<http://www.style.co.kr>)

<그림 21>은 2007년 가을, 겨울(F/W) 베로니크 브란퀸호(Veronique Branquinho) 패션쇼 사진이다. 자연스럽게 정돈된 베이스 메이크업에 강한 터치의 붉은 갈색(10YR,5/6)을 사용해 중성적인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붉은 갈색(10YR,5/6) 계열의 색도는 눈매를 더욱 강조하여 그 깊이를 더했으며 강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2>는 2007년 가을, 겨울(F/W) 드리스 반 노튼(Dries van Noten)의 패션쇼 사진이다. 모델은 머리를 하나로 묶고 중성적인 이미지의 창백하고 매트(mat)한 피부표현⁴⁵⁾과 색감을 절제한 눈 화장과 눈썹

화장으로 현대적인 앤드로지너스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2) 2008년



<그림 23> 양성적인 앤드로지너스 스타일
(Dries Van Noten Collection. 2008. A/W,
In Beauty, 2008, p.176)



<그림 24> 양성적인 앤드로지너스 스타일
(Prada Collection. 2008. F/W,
In Beauty, 2008, p.132)

<그림 23>은 2008년 가을, 겨울(A/W) 드리스 반 노트(Dries van Noten)의 패션쇼 사진이다. 자연스러운 피부표현과 윤기 있는 갈색(10YR,5/6)의 아이채도를 어둡고 넓게 펴 바른 후 검정색(N1.25) 아이라인을 눈의 앞부분에만 그려 눈을 강조 하였다. 옆 가르마에 밀착된 앞머리는 남성적인 헤어스타일을 응용한 것으로 보인다. 눈에 포인트를 준 화장과 연한 입술화장이 2008년 앤드로지너스 스타일의 메이크업으로 제시

45) 사라 켈트, 전게서, p.74.

되었다.

<그림 24>은 2008년 가을, 겨울(F/W) 프라다(Prada) 패션쇼 사진이다. 이 시기의 프라다는 강한 여성의 이미지를 추구했으며 각진 눈썹의 형태로 남성적인 힘과 강인함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반면에 머리에 장식한 레이스는 로맨틱하고 여성적인 이미지로서 다양한 성적 이미지들이 융합되어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2009년



<그림 25> 눈썹을 강조한 앤드로지너스
(Ann Demeulemeeste Collection. 2009. F/W,
In Beauty, 2009, p.95)



<그림 26> 눈썹을 강조한 앤드로지너스
(Natasha Stoll Collection. 2009. F/W,
In Beauty, 2009, p.190)




<그림 25>는 2009년 가을, 겨울(F/W) 앤 드물미스터(Ann Demeulemeeste) 패션쇼 사진이다. 부드럽고 빛나는 피부표현에 눈썹을 한올 한올 굵

고 강하게 그려 원시적이고 다듬어지지 않은 남성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6>는 2009년 가을, 겨울(F/W) 나타샤 스틸(Natasha Stoll)은 그래픽(Graphic) 적이고 부서질 것 같은 까만 눈썹은 축축하게 젖은 머리카락을 꼬아서 만든 꼬임머리와 매치가 되어 한층 더 강조 되고 있으며 강한 남성상을 나타내고 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패션쇼에 나타난 1980년대 레트로 메이크업의 특징을 컨셉별, 연대별로 분류하여 <표-1>, <표-2>, <표-3>으로 정리하였다.




<표-1> 패션쇼에 나타난 핑크 스타일 분류 (2007~2009)

| | 2007년 | 2008년 | 2009년 |
|------------------------------|-----------------------------------------------------------------------------------|-----------------------------------------------------------------------------------|------------------------------------------------------------------------------------|
| 메이크업 패턴 (Make-up Pattern) |  |  |  |
| 피부 화장 | · 과장된 하얀 피부 | · 혈색이 없는 차갑고 창백한 피부 | · 밝은 색상의 정돈된 피부 |
| 눈 화장 | · 검은색(N1.25) 눈 화장 · 강한 명도대비 | · 눈썹을 밀어버리거나 생략함 · 사각형의 문양 · 피어싱, 문신 등의 신체적 장식 | · 검은색(N1.25)을 중심으로 핑크(10RP,4/10), 보라(5P,3/12) 등의 색감 강조한 눈 화장 |
| 입술 화장 | · 생략하거나 인위적인 표현 | · 한색계열(10BP,3/10)의 입술표현 | · nude 핑크색(5Y,9/4) · 촉촉한 질감 연출 |
| 볼 화장 | · 생략하거나 갈색(5YR,6/12)으로 광대뼈 밑을 퍼 바름 | · 생략함 | · 핑크색(10RP,4/10)으로 강하게 사선으로 표현 |
| 컨셉 | · 공포감 조성 · 키치(Kitsch) 스타일 | · 불쾌하고 위협적임 · 차갑고 비인간적임 | · 현대적인 세련미 |

<표-2> 패션쇼에 나타난 글래머 스타일 분류 (2007~2009)

| | 2007년 | 2008년 | 2009년 |
|------------------------------|----------------------------------------------------------------------------------------------------------------|-------------------------------------------------------------------------------------------------------------------------------|--------------------------------------------------------------------------------------------------------|
| 메이크업 패턴 (Make-up Pattern) |  |  |  |
| 피부 화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촉촉하고 잡티 없는 피부표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기 있는 화사한 피부표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벽한 커버와 윤기 있는 피부 |
| 눈 화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스러운 눈썹 · 파란색(5B,4/8), 보라색(5P,3/12)의 펄이 가미된 색상사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황색(5YR,6/12), 노란색(5Y,9/14)의 생기 있는 눈 화장 · 눈 꼬리 쪽으로 길게 뻗 변형된 눈 화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하게 그린 눈썹 · 짙은 브라운 색상(10YR,5/6)을 이용한 눈 화장 |
| 입술 화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시한 핑크색(5R,9/4), 크림색(5Y,9/4) 사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림색(5Y,9/4) 사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붉은 색상들(10PR,5/10), (5R,4/14)을 사용함 |
| 볼 화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색(5YR,6/12) · 핑크색(5R,9/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황색(5YR,6/12)을 연하고 넓게 퍼 바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짙은 갈색을(10YR,5/6) 바름 |
| 컨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아하고 현대적인 글래머 스타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하고 도도한 글래머 스타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힘 있고 관능적인 글래머 스타일 |

<표1-3> 패션쇼에 나타난 앤드로지너스 스타일 분류 (2007~2009)

| | 2007년 | 2008년 | 2009년 |
|------------------------------|-----------------------------------------------------------------------------------|-----------------------------------------------------------------------------------|------------------------------------------------------------------------------------|
| 메이크업 패턴 (Make-up Pattern) |  |  |  |
| 피부 화장 | · 창백한 흰 피부 | · 잡티 없는 피부표현 | · 부드럽고 윤기 있는 자연스러운 피부 |
| 눈 화장 | · 색감이 거의 드러나지 않음 | · 각지고 두꺼운 눈썹표현 · 어둡게 표현한 눈 화장 | · 개성적인 눈썹 · 새로운 화장법 제시 |
| 입술 화장 | · 생략하거나 자연스러운 입술 표현. | · 핑크색(5R,9/4)으로 여성스러운 입술표현 | · 생략함 |
| 볼 화장 | · 생략함 | · 갈색(5YR,6/12)을 연하고 넓게 퍼 바름 | · 생략함 |
| किन셈 | · 중성적인 스타일 | · 양성적인 스타일 | · 남성적인 스타일 |

IV. 1980년대 스타일을 응용한 메이크업 작품 연구

1. 작품의도 및 방법

1980년대의 패션은 풍요로웠던 시대만큼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고 그 시대의 메이크업 또한 스타일에 맞추어 새롭게 재조명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연구 필요성을 얻게 되었으며 1980년대를 선정하여 그 당시의 메이크업 스타일을 알아보았다. 패션쇼에 나타난 1980년대 레트로 메이크업인 핑크, 글래머, 앤드로지너스를 중심으로 작품의 주제를 선정하고 이미지를 세분화 시켜 현대 감각에 맞는 디자인 및 특징적 요소들을 가미한 미적가치를 새롭게 재조명한 작품을 제작하였다.

연구 작품의 구성은 총 9점이다. 연구 작품 1, 연구 작품 2, 연구 작품 3은 기하학적인 문양과 원색의 컬러를 이용하여 1980년대 핑크 스타일을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재구성하였다. 연구 작품 4, 연구 작품 5, 연구 작품 6은 레드 컬러의 입술화장에 작품마다 다른 모양의 인조 속눈썹을 사용하여 눈 화장에 다양성을 표현한 글래머 메이크업을 시도하였다. 연구 작품 7, 연구 작품 8, 연구 작품 9는 눈썹에 다양한 오브제를 부착하여 메이크업으로 표현 할 수 있는 앤드로지너스 스타일을 작품 연구하였다.

작품의 제작은 메이크업 제품과 1980년대의 유행 컬러인 붉은색(5R,4/14), (10PR,5/10), 오렌지색(5YR,6/12), 검정색(N1.25)을 중심으로 사용하였으며⁴⁶⁾, 여성 모델의 얼굴에 시연하여 사진으로 제작하였다.

46) 히테오 아오키, 전개서, p.184.

2. 작품 및 설명

1) 연구 작품 1 - 핑크 스타일을 응용한 메이크업 1

① 작품 재료 - 아이섀도, 아이라이너, 립글로즈, 속눈썹, 파운데이션

② 작품 설명 - 이 작품은 핑크의 느낌을 나타낸 작품으로 몽환적인 이미지의 보라색(5P,3/12)과 붉은색(5R,4/14)의 부풀린 헤어스타일에 매치시켰다. 메이크업에서는 눈 화장에 포인트를 주었으며 진한 자주색(10YR, 6/10) 컬러로 눈썹 위 부분까지 음영을 주어 기존의 눈 화장에서 탈피한 표현을 하고자 하였다. 눈 밑에는 하늘색(10BG,5/6)을 발라 보색대비 효과로 화려하게 표현하였다⁴⁷⁾.



<그림 27> 핑크 스타일을 응용한 메이크업

47) I.R.I 색채연구소, 유행색과 컬러마케팅, (서울, 영길, 2003), p.22.

2) 연구 작품 2 - 핑크 스타일을 응용한 메이크업 2

① 작품 재료 - 유성물감, 빨간색(10PR,5/10) 크림파운데이션

② 작품 설명 - 핑크룩에서 액세서리로 이용되는 그물 망사를 얼굴을 감싸는 오브제로 사용하여 기존의 틀에서 탈피하려는 억압된 젊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반항적이고 강렬한 인상을 표현하기 위해 빨간색(10PR,5/10)의 크림파운데이션으로 눈 화장에 포인트를 주었다. 검정색(N1.25) 유성물감으로 선명한 사선형의 아이라인을 그려 관찰자의 시선을 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그림 28> 핑크 스타일을 응용한 메이크업

3) 연구 작품 3 - 핑크 스타일을 응용한 메이크업 3

① 작품 재료 - 아이라이너, 크림 파운데이션, 글리터, 립 글로즈

② 작품 설명 - 이 작품은 죽음, 공포, 등의 불안감을 나타내는 검정색(N1.25)으로 방황하는 소녀의 내적 심리감을 표현하고자 하였다⁴⁸⁾. 검은색(N1.25)을 주조색으로 사용하였는데 검정색(N1.25)의 부풀려진 의상과 헤어 액세서리를 착용하여 비현실적인 소녀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검정색으로 눈꺼풀을 칠하고 은색 글리터로 눈 아래를 화장하여 음영을 과장되게 부각시켰다. 입술에는 붉은색(10PR,5/10)의 립 글로즈를 거칠게 발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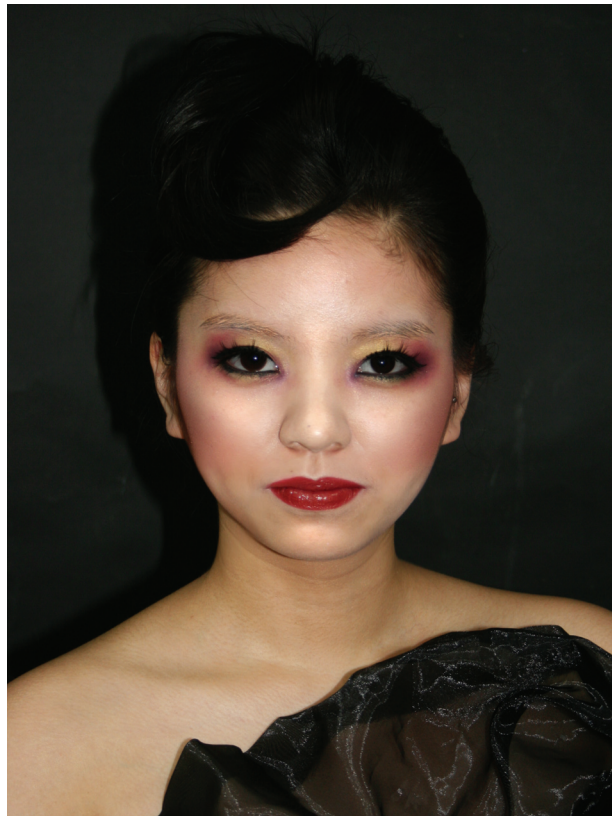
<그림 29 > 핑크 스타일을 응용한 메이크업

48) 김유순, 전계서, p.117.

4) 연구 작품 4 - 글래머 스타일을 응용한 메이크업 1

① 작품 재료 - 속눈썹, 아이섀도, 아이라이너, 립스틱, 볼터치

② 작품 설명 - 이 작품은 글래머 스타일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전체적인 피부 톤을 화사하게 정리하고 눈과 입술 그리고 볼터치가 강조 될 수 있도록 작업하였다. 눈썹은 피부톤과 흡사하게 톤을 다운시키고 눈에는 노란색(5Y,9/14)과 자주색(5RP,4/12) 그리고 붉은색(5R,4/14)을 사용하고 아이라인을 진하게 그렸다. 입술에는 선명한 붉은색(10PR,5/10)을 사용하여 건강미 넘치고 여성적인 글래머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그림30> 글래머 스타일을 응용한 메이크업

5) 연구 작품 5 - 글래머 스타일을 응용한 메이크업 2

① 작품 재료 - 인조 속눈썹, 글리터, 립스틱, 리퀴드 화운데이션

② 작품 설명 - 이 작품은 여성스러움과 환상적인 분위기의 글래머 스타일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미세한 펄이 첨가된 리퀴드 화운데이션으로 반짝이는 피부를 표현하였다. 깃털이 달린 풍성한 속눈썹을 오브제로 사용하여 눈의 크기를 연장시켰으며, 금색(5Y,9/14)과 검정색(N1.25)의 아이섀도를 눈꺼풀에 발라 화려하고 우아한 메이크업을 시도하였다. 입술에는 형광 핑크색(10RP,4/10)의 립스틱으로 발라주어 섹시한 이미지로⁴⁹⁾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림 31> 글래머 스타일을 응용한 메이크업

49) 오희선, 상계서, p.21.

6) 연구 작품 6 - 글래머 스타일을 응용한 메이크업 3

① 작품 재료 - 아이섀도, 파운데이션, 아이라이너, 속눈썹, 립스틱

② 작품 설명 - 이 작품은 글래머러스한 스타일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화사한 피부에 검정색(N1.25)과 오렌지 컬러(5YR,6/12)의 선명하고 깊게 눈 화장을 하였다. 상큼한 오렌지 빛(5YR,6/12) 치크와⁵⁰⁾ 강하고 섹시한 느낌의 강렬한 붉은색(5R,4/14)의 입술 메이크업으로 클래식한 글래머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그림 32> 글래머 스타일을 응용한 메이크업

50) 김유순, 전계서, p.109.

7) 연구 작품 7 - 앤드로지너스 스타일을 응용한 메이크업 1

① 작품 재료 - 아이브로우, 리퀴드 화운데이션

② 작품 설명 - 이 작품은 앤드로지너스 스타일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남성용 페도라(Fedora)를 착용한 모델의 얼굴에 중성적인 메이크업으로 2009년 트렌드를 반영한 현대적인 앤드로지너스 스타일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리퀴드 화운데이션으로 윤기 있는 피부표현을 하고, 검정색(N1.25) 아이브로우로 굵고 진한 눈썹을 그렸다. 이목구비를 강조하기 위해 코와 턱 광대뼈에 하이라이터(Highlighter)를 넣고 광대뼈 밑에 어두운 음영을 넣어 얼굴 윤곽을 부각시켰다.



<그림 33> 앤드로지너스 스타일을 응용한 메이크업

8) 연구 작품 8 - 앤드로지너스 스타일을 응용한 메이크업 2

① 작품 재료 - 화이트 화운데이션, 아이브로우, 립스틱,

② 작품 설명 - 이 작품은 앤드로지너스 스타일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비대칭적인 짧은 헤어스타일에 흰 피부 화장으로 미성숙하고 순수한 소년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짙은(N1.25) 눈썹과 흰색 아이섀도를 사용한 눈 화장, 피부와 같은 톤의 핑크색(10RP,9/4) 립스틱으로 입술을 발라 메이크업을 완성하였다.



<그림 34> 앤드로지너스 스타일을 응용한 메이크업

9) 연구 작품 9 - 앤드로지너스 스타일을 응용한 메이크업 3

① 작품 재료 - 리퀴드 화운데이션, 아이라이너, 스톤

② 작품 설명 - 이 작품은 앤드로지너스 스타일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중성적인 이미지를 위해 사진을 흑백으로 촬영하여 색상이 주는 선입견을 최소화하고 명도대비에서 표현되는 강한 얼굴윤곽을 강조하고자 하였다⁵¹⁾. 메이크업에서는 스톤을 눈썹과 눈의 시작부분에 장식하여 남과 여의 경계를 극히 얇게 하는 앤드로지너스의 스타일을 표현하였다. 또한 코와 턱 광대뼈에 하이라이터(Highlighter)를 넣고 광대뼈 밑에 어두운 음영을 넣어 얼굴선을 강하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림 35> 앤드로지너스 스타일을 응용한 메이크업

51) 프로랑스 드 메르디, 정재곤 역, 예술과 뉴테크놀로지, (서울, 열화당, 2005), p.46.

V. 결론

2009년의 경제 불황과 종말론 등의 세기말 적 불안감은 현대인들에게 전 통과 역사 그리고 순수성으로의 복귀를 부추기고 있다⁵²⁾. 옛날 시대의 향수를 가지고 과거의 양식을 재현 한다는 의미의 레트로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2000년대 패션쇼에 나타난 1980년대의 메이크업 스타일을 분석함으로써 과거의 양식이 현재에도 다양한 스타일이 무한한 영감을 주는 출처를 제공한다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연구의 의의를 삼고자 하였다. 또한 패션쇼에 나타난 레트로 메이크업의 연대별 변화에 따른 메이크업 경향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메이크업 경향을 예측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특히 최근에 와서 디자이너들은 20세기 포스트모더니즘의 흐름 속에서 화려함과 다양성을 보여줬던 1980년대를 동경하며 현재에 재현시키고 있으며⁵³⁾ 근래의 트렌드로써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21세기 패션쇼에 나타난 1980년대의 레트로 스타일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을 보인 핑크(Punk), 글래머(Glamour), 앤드로지너스(Androgynous) 스타일에 중점을 두고 각각의 메이크업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핑크 스타일 메이크업(Punk Style Makeup)은 과거의 스타일을 답습하는 단순한 재현에 그치지 않고 여러 스타일의 공존으로 그 시대의 유행 흐름을 파악하고 수용하여 변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2007년의 핑크 스타일은 지나친 하얀 피부와 넓게 바른 검정색(N1.25)의 눈 화장과 입을 표현하여 강한 명도대비를 나타내었다. 그 위에 반짝이는 글리터를

52) I.R.I 색채연구소, 전게서, p.123.

53) 플로랑스 드 메르디, 전게서, p.218.

사용해 더 부각시켰으며 공포감과 키치(kitsch)한 분위기를 나타내었다. 2008년의 핑크 스타일은 창백한 피부를 나타내면서 입에 뚫은 피어싱, 몸에 그린 문신과 직사각형의 문양 등 신체적 장식으로 불쾌감과 차가운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위협감과 공포감을 표현하였다. 2009년의 핑크스타일은 정리된 윤기 있는 피부로 과장된 피부표현에서 벗어나 핑크색(10RP,4/10), 보라색(5P,3/12), 녹색(10YG,6/10)으로 색채감을 나타냈으며 현대적 세련됨을 강하게 나타내었다.

둘째, 글래머 스타일 메이크업(Glamour Style Makeup)은 1980년대의 붉은색(10PR,5/10)의 입술과 인위적인 눈 화장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색감으로 현대적인 여성스러움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07년은 자연스러운 눈썹표현과 파란색(5B,4/8), 보라색(5P,3/12), 검정색(N1.25) 등의 색상으로 스모키한 눈 화장을 하였으며 글래머의 상징이던 붉은색(10PR,5/10)에서 벗어나 글로시한 핑크색(5R,9/4), 크림색(5Y,9/4)의 입술 표현으로 현대적인 글래머를 나타냈다. 2008년은 주황색(5YR,6/12), 노란색(5Y,9/14)의 생기 있는 눈 화장과 새롭게 변형시킨 표현기법으로 건강미와 도도한 글래머 스타일을 보여주었다. 2009년은 다시 1980년대로 돌아가 재현한 듯 강한 색채감을 보여주며⁵⁴⁾ 힘 있고 관능적인 글래머 스타일을 나타냈다.

셋째, 앤드로지너스 스타일 메이크업(Androgynous Style Makeup)은 시대에 따라 세련되고 현대적인 남성이미지를 결합하면서⁵⁵⁾ 표현 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2007년에는 창백한 피부와 색채감의 전혀 없는 화장 표현으로 아무 성도 느낄 수 없는 중성적인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2008년에는 남성스러움의 두껍고 각진 눈썹, 어둡게 표현한 눈 화장과 여성스러움의 입술표현의 결합으로 양성적인 스타일 보여주고 있다. 2009년

54) 하마모토 다카시, 전게서, p.256.

55) I.R.I 색채연구소, 전게서, p.124.

에는 부드럽고 윤기 있는 피부표현과 새롭게 변형된 눈썹모양으로 부각시켜 남성적인 면을 강하게 보여주었다.

본 논문은 메이크업에 중점을 주어 고찰하였기 때문에 토털 패션 개념으로서의 헤어와 패션에 대해 다루지 못하였으므로 좀 더 구체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다.

참 고 문 헌

- 김금란 외, 플러스 메이크업, 예림, 2007
- 김민자, 복식미학 강의2, 교문사, 2004
- 김영순, 패러디와 문화,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5
- 김유순 외, 이미지 메이킹, 예림, 2004
- 김지희, 20세기 화장 문화사, 경춘사, 2006
- 곽형심, 미용 문화사, 청구문화사, 2004
- 간문자, 패션과 디자인, 신정, 2007
- 박보영 외, Make up Art, 청구, 2002
- 이주영 외, 미국문화의 이해, 증명출판사, 1998
- 이현숙 외, 패션과 뷰티를 위한 코디네이션, 신정, 2002
- 양숙향 외, 패션 20세기, 교학연구사, 2006
- 양숙희 외, 패션과 영상, 숙명여자 대학교 출판부, 2008
- 정삼호, 현대패션모드, 수문사, 1996
- 정홍숙, 서양 복식 문화사, 두산동아, 1997
- 조규화 외, 패션미학, 수학사, 2004
- 채금석, 현대 복식미학, 경춘사, 1995
- 태해숙, 미국현대사의 흐름, 비봉출판사, 2006
- 한명숙, 마꾸아쥬 예술, 청구문화사, 2007
- 현택수, 일상 속의 대중문화 읽기, 고려대학교출판부, 2003
- David Bond, 정현숙 역, 20세기 패션, 경춘사, 1992
- David Batchelor, 김윤희 역, 색깔이야기, 아침이슬, 2002
- Eleanor Heartney, 이태호 역, Postmodernism, 열화당, 2003

Jean Baudrillard, 이상률 역, 소비의 사회, 문예출판사, 1999

Linda Hutcheon, 김상구 역, 패러디 이론, 문학 출판사, 1992

Robeert Hughes, 최기득 역, 새로움의 충격, 미진사, 1995

Penny Sparke, 김난령 역, 디자인의 역사, 예경, 2004

한수연, 현대패션에 표현된 글래머룩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원,
박사학위, 2006

백승희, 신회귀(neo retro) 경향에 의한 식물이미지 패턴 개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 학위, 1991

ABSTRACT

A Study on Retro Makeup which showed in Fashion Show in 2000s.

Oh, Yoon Jung
Major in Make-up & Special Make-up Effects
Graduate School of Art & Design
Sungshin Women' s University

Fashion trend in 2000s is progressing to Retro fashion that emotion of modern to be able to feel nostalgia and recollection for past is reflected, revealing negative limit to be humanity loss by highly developed technology.

Designers who should present new trends all the time are showing the 3rd style in fashion show by grafting and reinterpreting dearest wish toward past rich period and individualistic and meaningful things of the 21st century.

Since the beginning of recent time, fashion world started to watch style in 1980s, and fashion, makeup, hair-style in 1980s are being highlighted as present new trend. Makeup style for 1980s has influence modern fashion by being reinterpreted newly under the change of mass media and influence of socio-economic environment, but concrete study as to how retro makeup in 1980s is being expressed in modern fashion show is petty.

Thus, examining makeup in 1980s has importance that past style offers artistic motive now as infinite inspiration of diverse styles.

It can be said that study of retro makeup which showed in fashion show in 2000s has goal in presenting it as data to be able to grasp detailed flow of present fashion and forecast change of makeup which will be unfolded in the future.

Thus, this researcher studied concept of retro and socio-cultural background of 1980s as theoretical study. In addition, I studied feature of makeup which was in vogue in 1980s. In main discourse, I analyzed retro makeup in 1980s which showed in fashion show in 2000s in accordance with main concept. As for retro style which showed in fashion show, we may classify hair and makeup style in accordance with various concepts.

This researcher limited punk style, glamour style, and androgynous style which showed most conspicuously in fashion show from 2007 to 2009 as study range. In addition, I arranged study contents with diagram by classifying by years and generation.

This researcher made work study centering around feature of each concept of retro makeup extracted by years and generation. Through work study of retro makeup in 1980s, I made retro in 1980s be help for creative work activity of makeup as new motive for modern makeup.